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

전례없는 한미일 협력으로 전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한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한미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님이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인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게 만들어 주셨

다”고 했다.

아키바 국장도 “설리번 보좌관의 모든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한미일 관계를 환영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만찬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주일미국대사,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봉화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동화 속 산타마을로 출발!!

###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개장

경북도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한겨울 분천산타마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산타마을 이벤트는 오는 16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59일간 운영되며, 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재미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첫날 개장식에는 공식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 댄스팀 등의 특별공연과 함께 우디, 이보람 등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분천산타마을의 캐릭터인 '레노와 친구들'이 참가 관객들과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행진하는 마칭밴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산타클로스의 본거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 시에서 핀란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마을을 직접 찾아온다.

핀란드 공인 산타는 개장 첫날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산타마을에 머물면서 '산타가 나타났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쇼하는 갱스터 쇼맨의 마술쇼'(12.24~25일), 유튜브 출신

인기가수 탐현이 꾸미는 '메리 크리스마스 음악 콘서트'(12.24), 캐리커처와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분천 추억 저장소'(12.16,12.24,12.25) 등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분천 겨울왕국 팝업 놀이터'(12월 매 주말, 1~2월 매주 토요일), '분천 산타클로스 스튜디오'(1~2월 매주 토요일), '산타 썰매체험', 알파카 먹이주기 체험인 '메리, 크리스마스와의 만남', 산타마을 캐릭터인 레노와 친구들을 활용해 직접 나만의 컬러링 염서를 만들어 보는 '2024 크리스마스 우체통'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분천 산타마을은 전국 어느 관광지보다 비교해도 손색없는 색다른 콘텐츠를 강점으로 겨울마다 다시 찾고 싶은 전국 대표 관광지”라며, “아이들을 위해 이 곳을 찾은 어른들마저 동심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게 할 정도로 풍부한 볼거리와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변의 백두대간수목원, 청량산 등 웰니스 관광지도 함께 둘러보면서 봉화의 흥과 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했다.

한편, 분천 산타마을은 2014년 12월 백두대간 자연 자원과 산타클로스를 테마로 하여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다.

2016년 '한국관광의 별'(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5~2016년 '겨울여행지 선호도 조사 2위'(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오르는 등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조사료 전국 최고 품질 입증

전라남도가 전국 최고의 명품 조사료를 선발하는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전남이 우수상 등 2개 부문에 수상, 전남산 조사료가 전국 최고의 명품 조사료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료 품질경연대회는 국내산 조사료 경영체의 생산 의욕 고취 및 우수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전국의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이탈리아나 이그라스(IRG), 옥수수 등 국내산 사료작물의 품질을 수분함량(40%)에 따른 품질평가 항목(외관, 화학 등)에 따라 평가하는 대회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 늘푸른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

화)에서 출품한 이탈리아나 이그라스(IRG)가 우수상, 장흥군 한일영농조합법인(대표 백계현)에서 출품한 이탈리아나 이그라스(IRG)가 장려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5%인 6만 ha를 재배하면서 조사료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등에 국비 380억 원을 포함,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 조사료 재배 10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전문단지 16만 6천ha를 지정해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조사료 사일리지에 생산자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조사료 품질평가를 실시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m<sup>2</sup>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곡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m<sup>2</sup>,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

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사 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남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합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m<sup>2</sup>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

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융적·안전 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m<sup>2</sup> 이상에서 10만m<sup>2</sup>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호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 경북도의회 초우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

## 성금 2백만원 기부로 사랑의 온도 높이기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 초우회는 12월 11일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2백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경북도지사실에서 개최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규탁 초우회장과 최덕규 수석부회장 등 초우회 임원과 경상북도지사가 함께 했으며,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규탁 초우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졌다"며 "초우회 회원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도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규탁 초우회장은 경북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공세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따뜻한 의원으로서 도민 복리증진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우회는 조만간 도내 소외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계획중이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가결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개 안건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 교육청 당초예산 62억6천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62억6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억원 △혁신교육운영 △5억 5천만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8억5천만원 등 36개 사업이다.

교육위원회 삭감사업 중 △울산교육정책개발 3억1천8백만원 △디지털교육운영 2천6백만원 △학생급식비지원(강북, 강남) 24억1천2백만원 등 46억6천6백원은 다시 살펴 수정 가결했다.

# 부산시의회, 부산 저출산 문제 획기적인 변화와 대책마련

## 부산형 시책을 발굴을 위해 팔 걷어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의원(사하구 1, 행정문화위원회)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 에서 주최한 '부산광역시 출산·보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출산,보육 정책을 분석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을 다시 재구성하기 하여 출산·보육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는 정책개발을 위한 네가지 관점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부산청년패널조사와 두 번째는 국내 출산보육정책 우수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제도 사례연구를 통한 과제 도출, 네 번째는 연구위원회와 시민들 간 토론회 의견을 통한 도출등 크게 네가지 방향에서 정책재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 중 출산보육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 및 지원 기간등 확대와 지원서비스의 다양성과 확대, 그리고 다자녀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실제

반영되어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 참여한 의원들은 저출산에 대한 부산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서 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본 최종보고를 토대로 내년에는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통한 기반 점검과 함께 부산형 시책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최영진의원외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 (비례), 윤태한의원 (사상구1),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의원 (부산진구2), 박진수의원(비례),조상진의원(남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동래구3),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구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 경남도의회, 도민 소통의 장 열다

## '2023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개막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개회식을 갖고, 올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17개 과제에 대해 양일간 7개의 세션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남도의회 14개 의원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정현안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책연구를 활발히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개회식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및 강용범 부의장을 비롯 14개 연구단체 의원과 도, 관련 유관기관, 도민 등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했다.

세션 토론회는 11일 I.청년·교육 세션을 시작으로, ▲ II. 지역발전 ▲

III.다문화·농업 3개 세션 8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12일에는 ▲ IV.공공행정 ▲ V.문화·체육 ▲ VI.사회복지 ▲ VII.관광 4개 세션 9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개회식과 토론회 전 일정은 경상남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하여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진부 의장은 "다양한 토론주제들이 지역현안과 밀접한 사항으로, 여러 전문가와 도민들의 혜안이 모아져 경남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이 도출될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12대 의원 연구단체는 14개 단체로 구성되어, 다양한 도정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장재현/기자

#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 20만 자족도시 남구 위한 특화발전 정책 촉구

## 기획발전특구 유치로 청년 창업활성화와 주민생활밀착형 공공 시설재배치 등을 통해 '20만 자족도시 남구' 옛 명성 회복 촉구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1)은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대구 도심권에 포함된 남구가 처한 경제침체와 지역쇠퇴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타개하고 '20만 자족도시 남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특화발전 정책 시행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박우근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대구 도심권에 포함된 중구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북구는 도심융합특구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나름 활력을 찾고 있다"며, 그 반면 "남구는 1992년 25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19년 15만명 선이 무너졌고,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공통화가 극심하고, 기존 갖고 있던 교육과 산업기능이 사라지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스타트업 기업들도 타 자치구로 이전해 산업공동화 조차 심각하다"며 남구지역의 지역쇠퇴, 경제침체, 정책적 소외감 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남구의 인구와 산업공동화를 타개하고, '2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간의 아파트 건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유입 정책과 주거명소 회복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청년 유입정책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9대 정책 중 하나인 기획발전특구의 남구 유치"를 제안한다.

기획발전특구는 지역 청년의 신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창업활성화 제도로 "과거 남구지역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던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등 각 대학의 유휴캠퍼스를 활용해 특구를 지정하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구가 중구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인 '도심캠퍼스 타

운'을 남구 교대역 일원의 각 대학 캠퍼스와 연계할 경우 기획발전특구사업과의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 "주거 편의를 위한 소방서,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인프라를 적절히 재배치해야 한다"며 주거명소 남구의 옛 명성 회복정책도 제안한다.

박우근 의원은 "9개 구·군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비로소 대구시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남구가 '20만 자족도시'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 대학캠퍼스 유휴지를 중심으로 기획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공공시설

재배치로 주거명소로서의 옛 명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성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광고국:1899.9659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하이문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지역주민 접근성 높일 것'

경기아트센터 주최 거리로 나온 예술  
2023년 성과 마무리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지난 8일 경기아트센터가 개최한 '거리로 나온 예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미자 의원과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170여 명이 참석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을 찾아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것으로 전문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생활예술동아리 등이 예술을 누리고 만드는 생활 예술인들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확대해 왔다.

참석자들은 올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강운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와 경기아트센터 김기현 정책사업팀장은 기초연설과 사업결과 보고를 통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이 1,143개의 거리공연과 591개의 방문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예술을 누렸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을 지속되도록 개선하여 내년에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경기북부 시군 단체장들과 면담 추진

## 특별위원회, 경기북부 시군 단체장 직접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논의 이어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1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시장·군수들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특별위원회는 북부지역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공유하고, 단체장들의 정책 제언, 건의사항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론조사, 주민투표 건의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서울' 같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위 위원님

들과 함께 앞으로도 경기북부 시장·군수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 논의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교홍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고, 11월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설치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월 7일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욱 의원의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는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과 2024년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과장·팀장 및 파주시청 사회적경제팀장과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이 각각 '24년 사회적경제 사업 방향'에 대해 민선 8기 사회적경제 비전인 4개 대표 정책, 10개 사업과 함께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개를 설명했다.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후보군)은 95개 사로 후보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참가자의 의견에, 경기도는 우선구매, 기업 연계를 통해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공공-민간기업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으로 구매시장을 확대하고, 경기도 임팩트샵 운영, 구매상담, 투자, 컨퍼런스를 결합한 페스티벌 개최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 개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예비-초기-스케일업 창업 패키지 사업과 더불어 중간 지원조직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 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청과 경기도 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The 경기패스', 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대광위 국장급 면담 실시하여 'The 경기패스'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 논의

경기도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와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장급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과 김영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이 만났다.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월 21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추진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하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he 경기패스'를 추진한다.

'The 경기패스'는 전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

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도민 추가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주요 사항을 대광위에 협조 요청했다.

김범상/기자

또한 전국 단위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현을 위해 대광위의 K-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경기도의 똑타 앱(통합교통플랫폼) 간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교통비 지원 등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와 대광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건의했다. 대광위는 경기도 요청에 대해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The 경기패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사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교통국장 주재로 31개 시군 과장급 회의를 13일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2024 1월13일~14일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개최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겨울스포츠의 꽃'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가 2024년 1월13일~14일 이틀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묘기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월 13일 ~ 1월 14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1월 6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페스티벌 (1월 7일)
- \_ 장소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최 :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 대한산악연맹    주관 :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 수원시 수출지원시책, '기업하기 좋은 수원' 밑거름 됐다

“아리랑TV에 기업 홍보영상이 송출된 후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 수원시, 재 미국, 독일 업 ‘수출중소기업 체와 수출 상담 도란도란 을 하고 있 습 니 토크’ 열고 기업인 다.”

수원시 목소리 들어 가 11일 시청 중 회의 실에서 연 ‘수원시 수출중소기업 도란도란 토크’에 참석한 남홍우 노블트리 대표는 “수원시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시책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자동 드림커피 머신 제조업체인 노블트리는 ‘중소기업 제품 영문TV 영상제작·방송 지원’에 참여했다.

‘수원시 수출중소기업 도란도란 토크’는 수원시 수출시책에 참여한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중소기업인 70여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코스파니엘의 김태규 대표는 “그동안 여러 수출박람회 참가했었는데,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며 “수원시가 주관한 싱가포르베트남 수출개척단에 참가했

으로 회사를 이전했는데, 수원시 지원을 받아 8월에 참가한 ‘2023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우리 제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수원으로 이전한 후 좋은 일이 생기는

많았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원시의 수출중소기업지원시책은 ▲중소기업 제품 영문TV 영상제작·방송 지원 ▲전자무역 플랫폼(웹사이트 구축 지원) ▲수출 간소화 지원 ▲국외 규격 인증취득 지원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 ▲국외 수출 판매투개척단 지원 등 11개가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곧 출시될 수원기업새빛펀드, 지난 10월 시작된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의 수출지원시책에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쁘다”면서 “오늘처럼 중소기업인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기업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삼/기자



수원시 수출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한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인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중소기업인 70여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소감을 발표한 기업인 10여 명은 “수원시의 수출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 화성도시공사,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희망을 잇다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마무리 했다 11일 밝혔다.

HU공사는 지난 9월 주식회사 개나리복지와 화성시사회복지재단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는 2020년부터 함께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한 집수리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9월과 10월 걸쳐 관내 4가구를 선정해 HU공사의 23명의 기술직 인력이 도배 및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었다.

또한 11일에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수혜자의 집을 찾아가 주거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 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HU공사는 주거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늘푸른 기억교실' 수료식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지난 8일 쉼터 프로그램 ‘늘푸른 기억교실’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늘푸른 기억교실은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주 4회 일일 3시간씩 진행된 쉼터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32명이 참석했다.

기억교실은 효과가 검증된 전문 인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작업치료,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돌봄 제공을 통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든 작품 전시 및 관람, 나만의 꽃다발 만들기, 수료증 수여 및 단체사진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며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니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쉼터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성남시, 내년 예산 3조5401억원 확정...올해보다 2.9% 증가

##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 중점

성남시는 3조540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의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 원보다 996억원(2.9%) 증액된 3조5401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8919억 원, 특별회계는 6482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 40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33억 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2억 원, 지하차도(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105억 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 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공사비 217억 원,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 77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 원, 맨발항토길 조성사업 35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30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성남시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주민 맞춤형 재건축 탄력 기대"

## 시, 일산신도시 사전컨설팅 이미 진행 중...신속한 사업추진 강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 마련에 발맞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다. 그러나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불

편이 증가하고 있다. 화정, 행신 등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를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점차 높아졌지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기존 안전진단기준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고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을 겪고 있는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

한영기/기자

# 안산시 옥장 김성운씨, 경기도 제18호 무형문화재 지정

안산시가 보유한 '옥장' 김성운 씨(51세)가 지난 5일 '경기도 제18호 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지정됐다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김성운 씨는 선친인 대한민국 보석가공 명장이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우리나라 옥공예 대표인물 故김용철 옥장에 이어 안산시에서 2대째 경기도 무형문화재 옥장으로 지정됐다.

김성운 옥장은 전통공예대전 등 수많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옥공예에 대한 홍보와 흥미유발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축제 등에서 공예체험 진행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옥공예 강의 진행을 통해 전통 옥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안산시 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운 옥장은 “가업을 잇고자 선친을 사사하며 옥공예에 입문하게 됐다”며 “현 시대에 사라져가는 전통 옥공예의 명맥을 잇고 그 아름다움을 전승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 “잿머리성황제, 옥로주에 이어 이번 옥장 보유자 승격으로 안산시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3가지를 보유하게 됐다”며 “점점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발굴과 전승을 적극 지원해 옛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포함 3과 신설 1과 폐지 조직개편

## 이달 20일자로 단행...국가산단지원팀 등 5팀 신설 인구정책팀 등 3팀은 폐지



용인특례시는 12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본청 1과와 사업소의 2과, 본청의 3팀과 사업소 1팀, 처인구의 1팀 등 5팀을 신설하고 1과와 3팀을 폐지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과는 주택국의 주택정비과와 도서관사업소의 중부도서관, 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관리과 등이며, 주택관리과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팀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2팀,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

반도체2과의 국가산단지원팀, 중부도서관의 영덕도서관, 처인구 도로과의 농어촌도시시설팀이다.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팀, 일자리정책과의 새로일하기센터팀은 폐지된다.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국에 신설되는 주택정비과에는 주택과 소관이던 리모델링팀, 주택관리과 소관이던 임대주택관리팀, 도시재생과에 있던 주거환경팀과 도시정비팀 등이 배치된다. 대신 주택관리과에 있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은 주택과로 소속이 바뀐다.

신설되는 중부도서관은 보라·서농·구성·기흥·흥덕·영덕도서관 등을 관장한다. 기존 서부도서관 산하이던 청덕도서관은 동부도서관 산하로 이관된다. 하수시설과의 하수정비팀, 하수운영과의 관로관리1·2팀이 각각 하수관로관리과 소속이 된다.

명칭이 변경되는 팀도 있다. 대중

교통과의 버스운영팀은 버스노선팀으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1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안전팀으로, 위생과의 원산지관리팀은 식품안전원산지팀으로 바뀐다. 또 각 구의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팀으로, 건축물관리점검팀은 건축물관리팀으로 이름을 바꾼다.

시민안전관 소관이던 자율방범대 운영은 행정과로, 인사관리과에서 맡던 청원경찰 임면 업무는 행정과가 맡는다. 반도체2과에 있던 반도체인재양성팀이 1과로 옮기면서 반도체 일자리 발굴 및 인력육성 업무도 반도체1과가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 긴급차량, 목적지까지 막힘없이 초록불... 15대→113대로 확대

##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11개 소방관서 → 53개로 확대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우선신호를 제공해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나 신호위반 없이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남동소방서 등 11개 관서, 차량 15대에 시범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11월부터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 내 모든 소방관서인 53개 관서, 차량 113대로 확대해 운영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 내 단말기에서 우선신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인공지능(AI)이 차량의 현재 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신호주기를 적절하게 자동 계산해 출동 구간

의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녹색 신호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막힘 없이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인천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긴급출동 중 사고 위험 감소로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하면 일반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이 약간 증가하더라도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선신호 작동 시 신호주기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측 출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 의정부시 여권민원실, 목요 야간 운영 실시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여권 발급 야간 운영을 실시한다.

평일 업무시간에 시정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여권 발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일반여권을 발급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은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해 의정부시청 1층 여권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기존 전자 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발맞춰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이천시 설봉공원 내 순환도로 개통

이천시는 설봉공원 내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공원 순환도로를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설봉공원 순환도로 정비공사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총 연장1.9km, 폭15m의 2차선 공원 내부 순환도로이다.

그간 설봉공원 내부 순환도로는 노후화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공원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이천시는 공원조성 20년만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재포장과 인도 재정비를 추진하여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불편이

많았음에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 할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주행시 반드시 규정속도(30km/h)를 준수하고 급커브 구간의 야간운전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하남시장,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

시립리버스위트칸타빌어린이집은 만3세반 유아들과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함께 최근 하남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하남시청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들은 이날 하남시청을 돌아보며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현재 하남시장으로부터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시장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산타클로스 변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

아이들 역시 게랑판을 재활용해 만든 크리스마스트리를 직접 준비해 하남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에게 선물했다.

이후 이 시장은 동반한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의 보육환경개선과 부모의 양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가족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덕담을 전했다.

최윤정 시립리버스위트칸타빌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하남시청 견학을 통해 올바른 보육환경 조성과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항상 살피주시는 이현재 시장님 이하 여성보육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하남시와 보육현장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남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부천시, 2023년 제9회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성료

## 20년간 이뤄낸 부천시 평생학습 성과와 희로애락 나누는 시간 마련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첫 선을 보인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2023'가 아트투어 활성화라는 새로운 시도로 호평을 받아며 막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2023은 지난 10월 19일 개막해 11월 30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했다. '흐름, 열 개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입체·설치·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4개국 15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나주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원 10곳에 현대적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의미에 예술적 가치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이 설치된 역사적 장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현대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민선 8기 나주시의 문화 정책 비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산재하듯 분포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문화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 기간 전남문화재단 2개 사업팀을 비롯한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

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설치미술제 현장을 찾았다.

11월 16일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문화사절단인, 21일에는 광주문화재단 직원 100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재단 직원들이 문화와 예술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엮어내고 인문학적 담론을 담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배우길 바란다"며 관광 소감을 밝혔다.

장현우 나주시 문화예술특화기획단장은 "이번 설치미술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과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관광객들은 현대미술을 통해 나주의 역사와 의미를 마주했으며 주민들은 익숙한 장소를 통해 낯선 예술을 만나는 아트투어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윤용민/기자



## 보성군, 명품 보성키위 하나로마트 날개 달고 전국으로 비상

(주)농협유통 보성키위 유통망 확대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11일 서울 양재동 (주)농협유통 본사에서 보성군과 (주)농협유통이 보성키위 유통망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김철우 군수, 농협유통 신영호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장과 4개 지역 농협장, 보성키위영농조합 6개 법인 대표, 농협 전남본부 광역연합사업단장, 재경보성군향우회, 농협유통 사업본부 전무, 양재점 지사장 등 관련 직원이 함께했다. 두 기관은 보성키위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데 합의하고 향후 다양한 보성군 농특산물의 입점과 우호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기념해 오는 13일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보성키위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보성군은 하나로마트 유통채널을 활용해 소규모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성키위의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제품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힘써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업무협약식에서 “키위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보성키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협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며, “보성키위를 시작으로 다양한 농특산물로 품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는 “전국 최고 품질의 키위 생산지 보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키위 국내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이며 보성키위는 2022년 11월 키위 품목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된 바 있다. 최원영/기자



## 구례군,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주)농협유통 보성키위 유통망 확대 업무협약 평생학습 선포식, 동아리 공연, 체험활동 등 평생학습 성과공유 시간 가져 체결

구례군은 지난 9일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구례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구례군의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평생학습활동의 1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는 1,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선포식,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2부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활동 참여자들의 공연으로 우쿨렐레, G양상을 등 4개 팀이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8개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간 학습으로 다져온 재능과 끼를 살리는 공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암화 및 도자기 체험, 목재 및 매듭공예 체험, 세계놀이 문화체험 등 8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과 연계한 의미 있는 활동 시간을 가졌다. 구례군은 2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한 결과 올해 성인문해강사, 에코리더, 마을교육코디네이터 양성 등 57명의 활동가를 배출해내고, 마을교육, 디지털문해교육, 정보화교육 등 총 900여명의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이 평생학습도시로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미래를 향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전북도, 토하 양식기술 연구성과 2차 발표회 개최

전국 최초 토하 양식기술 특허 4건 등록

**2023 토하 연구성과 2차 발표회**

일시: 2023. 12. 15 (금) / 13:00 ~ 17:00  
장소: 부안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강당)

순서	시간	참석자	발표내용
1부	13:00 ~ 14:00	신규참석자	- 토하 기초연구 성과 & 예비 시장연구 결과
2부	14:00 ~ 15:00	신규참석자	1차 실증시험 연구(현장검증)
3부	15:00 ~ 16:00	기존,신규참석자	2차 실증시험 연구(응용)결과
4부	16:00 ~ 17:00		질의응답, 향후 계획 발표

※2022년 1차 발표 참석자는 3부 부터 참석요망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토하 양식기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문의가 높아짐에 따라, 1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전국의 민·관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간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2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발표 내용은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1~2부는 올해 신규 참석자를 위한 기초연구 과정 및 2023년 이전 종합성과 발표, 3~4부는 2022년에 추진한 민간 보급형 실내·외 실증시험연구 1차 추진 결과, 향후 계획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토하는 흙·土·새우·蝦'로서 '국내 민물새우류 총칭'의 표현으로 지역별 4~7종이 존재한다. 이중 산업적 가치가 높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기초 연구 결과, 새뱅이(Cardinalenticulata denticulata De Haan)가 최적 품종으로 확인됐으며, 국내·외 선행 연구사례가 전무하지만 전북도가 최초로 새뱅이 단일 완전 양식기술을 확립했다. 현재 확립한 기술은 총 4단계(선별, 번식, 육성, 수확)로 그간 과도한 노동력과 숙련도가 요구됐지만 생산 안정성이 낮은 민물고기 양식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 구조를 참고해 일

반적인 농작물 재배와 유사한 개념으로 확립하는데 노력했으며, 안정적인 소득과 함께 귀어·귀농·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한 기존 민물고기 위주의 내수면 양식산업은 특유의 향과 이물감, 부산물에 대한 선입견과 거부감, 탕·찜 등의 한정적인 레시피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현대인의 기호도가 점차 감소해 지속적으로 줄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기호도가 높은 신 품종 도입이 절실했으며, 산업적 가치로 판단할 경우, 새뱅이는 각종 가공산업에 주·부재료로써 광범위하게 접목 가능하고 시장 유통 및 6차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유리한 품종이다. 전국 내수면 양식 면적 1위(268/832ha, 32.3%)인 전라북도는 인지도와 함께 넓은 평야, 편리한 도로망을 통해 토하 양식기술의 단기간 대량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재희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도내·외 관심도 증가로 토하 양식을 내수면의 새로운 양식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연구사업 추진과 향후 전라북도 전입자의 정착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목포시민 한마음 나무심기 기념행사 개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감사함 기념식수에 담아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뜻과 열정으로 성공 개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난 11일 '양대 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의 번영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 주변 화단에 23그루의 은목서를 식수했다. 이날 행사는 23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23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시는 기념식수 표지판에 양대 체전을 성공으로 이끈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박홍을 목포시장은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면서 “각 동마다 한 그루씩

은목서를 심은 만큼 앞으로도 더욱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목포 시민 4천2백명의 자원봉사와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의 성적 향상은 물론, 신기록을 경신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양대체전의 성공에 대해 목포시민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목포시민들이 정성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출선수범해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한편, 사설 주차장까지 선듯 내어주어 많은 인파가 안전사고 없이 개막식과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면서 거듭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청정바다서 자라 품질 좋은 '완도 물김' 위판 한창

해황 여건 좋아 지난해보다 생산량 33% 증가

청정바다 완도에서 자란 물김 출하가 한창이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5일 금일수협 사동리 위판장에서 김 양식 어업인, 금일수협 관계자, 중매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김 초매식을 가졌다. 이날 물김 평균 경매 단가는 1마대

(120kg) 당 166,000원에 거래됐다.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394톤(77억 원)의 물김이 위판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33%, 생산액은 5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총 75,600여 톤(822억원)의 물김 위판 실적을 기록했다

물김 채취는 내년 4월까지 하며, 해황 여건이 좋아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총 403개 어가(11,960ha)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으며, 참김과 돌김 등의 시설량은 215,280책이다. 양영율/기자



## 김희수 진도군수,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자치단체장상 수상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목표로 지역의 변화와 혁신 주도



김희수 진도군수가 '2023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호남유권자연합(전남·전북·광주)은 한 해 동안 뛰어난 행정지도력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호남유권자연합 2023 시상식 및 송년회' 행사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한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도군의 기간

산업인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농수산업 관련 사업에 편성했고 농업 경영안전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대표 수산물 전략육성과 대형유통업체 유통망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 위해 꽃길 20km, 꽃단지 30ha 등 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특히 군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11월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68건에 1,1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는 5년 평균대비 약 7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며 “2024년에는 올해의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혁신 진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경북의 힘으로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는 12월 1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2023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22개 시군지회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 그리고 나눔을 통한 봉사활동,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 이우경 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중식 교육감,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최태림·이충원 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유수호와 도정발전,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5명, 도지사 표창 24명, 도의회 의장 표창 5명, 도교육감 감사패, 자유총연맹 도회장 표창 5명 수여와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안보의식과 의지는

갈수록 약화되어 우리의 미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착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아울러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역사적 소명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경북이 새로운 100년,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청소년 통일안보교육, 독도수호 결의대회,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도민 강연회 등의 도민 안보의식 고취를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체 행복지킴이 활동, 재난·재해 피해복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근수/기자



### 군립청송야생미술관 지역 작가 초대전시회 '재 너머 꽃에 서다' 개최

청송군은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립청송야생미술관에서 청송 지역의 문화예술인 모청(茅靑) 우승우 작가의 한국화 작품들을 전시하는 '재 너머 꽃에 서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모청 우승우 작가는 청송에서 출생한 한국화가로서 서울, 대구, 제주 등 각지에서 150여 차례 이상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송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다.

전시회는 우 작가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에 쏟고 있는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고 나아가 청송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을 맞아 전통 문화예술의 한 분야인 한국화 작품을 통해 군민과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정서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재 너머 꽃에 서다' 전시회는 작가가 고향에서 진행하는 첫 전시회로,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 중 고심 끝에 선정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로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 활기를 띠기 바란다."며 "바쁘고 힘들었던 한해를 보냈던 군민과 관광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잠시나마 쉬면서 즐거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일제점검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해상공사 동원선박 등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며,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서류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경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부산시 '2023 부산 무역의 날' 행사 개최

12.12. 16:00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개최



부산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부산 수출기업에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12월 오후 4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부산 수출기업인의 축제 '2023년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이남규 부산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해 기업대표 등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적(글로벌) 고공리 기조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망 교란, 러·우사태와 같은 지역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올해 부산은 중국, 일본 등 주요 제조기반 국가와 같이 수출실적과 무역수지에서 전년 대비 악세를 보였다.

하지만, 수출감소율은 7.4%로 전국의 수출감소율 10%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시도 지역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예보중소기업바우처(2억3천만 원),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6억 원), 중소기업수출보



중료지원(2억 원) 등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부산 수출 활성화에 노력한 171명의 수출기업인에 정부, 시장포상 등의 상을 직접 전수·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부산 수출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수출 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수출 저변을 확대에 이바지한 48명의 수출기업인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이 중 최고 영예의 상인 금탑산업훈

김희태/기자

### 대구 학부모 선언문, 그림책과 만나다

###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그림책 읽기' 운영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는 오는 12월 21일까지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학부모 800여 명이 타운홀미팅을 통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완성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그림책과 연계해 학부모들의 선언문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독서습관연구소 김연옥 대표가 총

10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그림책과 접목시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책, ▲더불어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림책, ▲마음 다스리는 그림책, ▲좌절을 극복하고 인내심 기르는 그림책 등 총 4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번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강 희망자는 12월 16일까지 대구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내 [학부모

윤근수/기자

교육] 메뉴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학부모교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교육청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그림책을 통해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만나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하여 사랑에 바탕을 둔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덕군,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영덕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성장 촉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49개 지구에 대해 이뤄진 종합평가로, 영덕군은 국·도비 집행 실적과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정량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수·우수 시책으로 가시실 구조물의 계획기 설치, 측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가시실 안정성 확보

등에 기여한 점이 크게 반영돼 정성평가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영덕군은 현재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동서 4축 고속도로와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동서축인 당진부터 영덕 간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남북축 포함부터 영덕 간

장문화/기자

고속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간선 도로망을 해안 관광지와 연결하는 것으로, 영덕군은 이를 통해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동기로 삼아 이번 동서4축 고속도로와 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 영덕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강덕 시장, "이차전지와 수소 큰 디딤돌 삼아 포항 미래 바꿀 것"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디딤돌이 될 핵심 현안 및 숙원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1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가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로컬대학30' 사업에 지역의 포스텍이 선정된 데 따른 의미와 향후 발전 방안 등 현안 사안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통과에 이은 후속 세부 조치와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마련 및 연구중심 대학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촉발시킨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의 법적 권리 보호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고,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직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한민족 해맞이축전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죽도시장 등 주요관

윤탕용/기자

광지의 교통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수소 클러스터, 글로벌대학30 등 포항 발전을 위해 큰 디딤돌을 놓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 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원도, 건강보험 진료지원 플랫폼 도내 전역으로 확산

##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 등 적극 참여로, 도 전역 확산 토대 마련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이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이 한번에 확인 가능 하며, 건보공단에서 수집된 환자의 5년간 진료내용, 검진내용, 처방이력, 2년간 라이프로그 자료 등이 공유된다.

‘22년 10월 구축한 이래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 17천여명의 도민과 도내 126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으로,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의 참여를 통해 도 전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원주시와 춘천시 청사 내에서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플랫폼 참여자 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에서 12월 12일~13일, 춘천시청에서 14일~15일, 각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9일 ~ 30일에는 강원 자치도청사 내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이틀간 530명의 인원이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본 사업은 ‘강원

특별자치도 혁신실행 우수과제 최종 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의료진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올해 춘천, 원주를 시작으로 도내 공공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확산의 첫걸음이 마련됐다면, ‘24년은 도 전역 확산을 목표로 각 기관 1차 의료기관 대상 사업 중심 플랫폼 참여를 집중 독려할 예정이며, 플랫폼 참여자수 확대를 위하여 도 통합플랫폼인 ‘우리도’내에 플랫폼을 연계, 홍보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전국 최초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이 제공되는 강원지역 한정 플랫폼 사업”이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도 전역에서 진료지원 플랫폼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민선 8기 문체부흥 통해 장애인체육 지원"

## 아산시 '2023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2023년 제13회 아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평가보고회’가 지난 11일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시도위원을 비롯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및 체육인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보고회는 장애인체육진흥사업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장애인체육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식, 2023년 사업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체육 발전 기금은 (주)에이티이엔지와 김병대 아산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아산시장장애인체육회는 올 한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제29회 충남장애인체전에서 한 등급 올라 종합 4위를 달성했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도 14개 종목에서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축하했다.

박 시장은 특히 “민선 8기 들어 ‘아트밸리 아산’으로 도시브랜드를 바꾸고 문체부흥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체육도 포함된다”며 “장애인체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스포츠 사업 확대, 도고온천 힐링 스파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쪼록 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면서 “아산시가 스포츠와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청소년 안전·저상버스 등 인권 증진 방향 공유

## 도 인권센터,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단, 도 시책 담당 부서, 도 인권센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경과 보고,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발표, 부서 의견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등 2개 시책과 ‘노

숙인 지원 정책 개선’ 1개 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시책은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입소 시설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설 운영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 20개 항목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청소년 입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거 및 학습, 여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심터 생활 규정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 시설·기관의 상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시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

장을 위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교육과 저상버스 운행 환경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리프트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응대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짚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 도입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 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관련해서는 도의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노숙인 지원 여부,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노숙인 의료 및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노숙인 인권절대 구제 수단 등 11개 항목을 살폈다.

평가단은 현재 노숙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해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며, 노숙인 시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천안 이외의 지역에 거리 노숙인 거점을 마련해 상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와 시책별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날 중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부턴 이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센터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시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 및 가공 농식품까지

충북도는 12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했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산지유명도, 생산기술 및 현지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

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스티커 등도 지원한다.

또한, 도·시·군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품질관리 상태를 현지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조직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다양한 농식품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태백시,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초청 관광종사자 및 시민 교육 개최

태백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태백관광종사자 및 시민 교육’을 개최한다.

제3회 태백관광종사자 및 시민교육에서는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태백 관광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이 초청되어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산업의 현황’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한국데이터마케팅학회 부회장이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tnN 책 읽어드는 나의서재, JTBC 셀전, 비정상회담, KBS 황금의 펜타곤 시즌3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월 20일과 12월 5일 열린 태백관광종사자 및 시민교육은 이연복 요리연구가가 ‘셰프가 들려주는 여행의 맛’과 김다영 여행콘텐츠 디렉터의 ‘여행을 바꾸는 여행트렌드’라는 주제로 진행한 바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관광종사자 및 시민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태백 관광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고, 최적화된 태백 관광정책 수립하여 관광의 제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관광종사자 및 시민대상 교육

제3회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관광산업의 미래

강사 |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송길영'  
일시 | 2023.12.14(목) 14:00  
장소 | 태백시청 대회의실



### 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송현초등학교 BTL 사업추진, 주민과 함께 시작



경북교육청은 12일 안동송현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동송현초등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사업비 266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사용·수익 권한을 획득해 20년간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과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체육활동 증대와 불법주차 해소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학교와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동송현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배경과 필요성, 학생과 지역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같은 학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 등을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미래 교육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예산 편성·재정 운용 건전성 강화

2024학년도 사학 기관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 안내

경북교육청은 12일 사학기관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사학기관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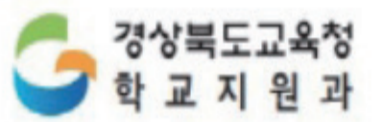
이번 지침은 △예산 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 계획 △학교 법인회계 예산 편성과 결산 지침 △예산 편성 관련 법령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초등학교 순수 기본 운영비 산출 기초인 교당경비 구간 중설, 세출 예산과목 '교직원복지' 사업 해설 내용 추가, 교육연구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학급 가산금 단가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학교장이 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권장사업이 2개 증가했고, 학교 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하여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에 융통할 수 있는 추가지원 사업이 3개 증가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역점을 뒀다.

정중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사학기관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면, 단위 학교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자율성도 함께 도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부산반송도서관, 1월 신나는 겨울방학 특강 운영 영어 스토리텔링, 과학 수사기법 체험, 한국사 북아트 수업 마련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이 특강은 겨울방학을 맞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알차고 즐거운 방학생활을 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게임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스토리텔링 수업 '동화나라 팡팡 잉글리시 쑹쑹', 혈흔감식, 지문 채취 등 과학 수사기법을 체험해보는 'CSI 꾸러기 과학수사대', 한국사 북아트 수업 '역사랑 놀자! 우리나라 세

계유산' 등 3가지로 구성해 프로그램당 4회씩 운영한다.

참가 희망자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반송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며,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은 반송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금 반송도서관장은 "다가오는 겨울방학, 어린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해 유익하고 신나게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교육지원청,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캠페인 실시 영어 스토리텔링, 과학 수사기법 체험, 한국사 북아트 수업 마련



울진교육지원청은 12월 12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문화 조성 및 금연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나와 모두를 위한 금연! 실천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흡연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자발적인 흡연예방 문화 및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했다.

황석수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의 중요성을 알려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의성교육지원청, 청렴의지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의성교육 실현 하반기 출근길 청렴 캠페인 진행

의성교육지원청은 12월 청사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출근길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반부패 주간에 맞아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 및 청렴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청렴 퀴즈와 청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실시한 청렴교육 및 청렴 캠페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간 수합된 의견들은 피드백을 통해 2024년 청렴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병호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실천의지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24년에도 청렴정책 실시를 통해 신뢰받는 의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유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호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공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서울시, 국내 뷰티 1위 MCN 기업과 손잡고 우리 뷰티제품 해외 진출 기회 높인다

### 인플루언서 연계한 서울뷰티워크, 수출상담회 및 뷰티 전문가 육성·인재 발굴방안 모색

밀착력 좋은 색조 화장품, 피부 트러블에 효과가 탁월한 기초 화장품 등 서울의 우수 뷰티 제품이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확산이 가속화된다.

서울시가 국내 뷰티 부문 1위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인 레페리(Leferi)와 12월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사·마케팅·교육·거점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다.

레페리(Leferi)는 2013년 설립되어, 레오제이, 민스코, 예바 등 인플루언서 400여명이 소속된 국내 1위 뷰티 MCN 기업이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서울뷰티워크, 수출상담회 등 사업 현장에서 기업과 인플루언서를 연계하고, 크리에이터·메이크업·마케팅·제조전문가 등 인재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과 거점별 K-뷰티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세계 마케팅

28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글로벌 마케팅 분석기업 '인플루언서마케팅허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 틱톡 등 숏폼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숏폼(Short form)은 평균 15~60초,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정보 습득은 물론 재미까지도 빠른 시간안에 즐기도록 하는 MZ세대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틱톡이 대표적이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각각 릴스, 유튜브 숏츠 등의 자체 숏폼 콘텐츠를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레페리의 우수한 크리에이터 풀(Pool)을 바탕으로 서울뷰티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KOC(Key opinion consumer)로 대변되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행정과 융합한다면 서울뷰티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과학수도 대전,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

### 교육부장관 주재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설명회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설명회가 11일 오후 3시 대전시 교육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대전시, 대전시 교육청, 충남대·한밭대 등 지역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개혁 과제 ▲학교복합시설 공모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인구소멸 시대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대전이 최고의 모델을 제시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견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11월 30일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과 교육청 부교육감이 만나 사업 모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7일에는 사업 범주와 추진계획 등 실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자원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있는 대전이야말로 지역 공교육 발전 속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교육발전특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내년 초에 예정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교육청, 대학 및 산업체 등과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지역 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하고 꿈을 실현하면서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 '2023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서 미래 전략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함께 '2023 차세대 미디어 대전' 행사를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칼러리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9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방송·미디어의 최신 산업동향 공유 및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대표 행사이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대전은 “변화하는 미디어의 혁신적 대응”을 주제로, 개막식, 기조연설,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콘퍼런스 등이 진행됐으며, 연계 행사로 뉴테크 융합 미디어·콘텐츠 콘퍼런스와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가 열렸다.

먼저, 12월 11일 개막식에서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유공

은 ①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 ②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 ③OTT 산업 진흥, ④PP 산업 발전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28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 진흥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① 방송콘텐츠 대상, ② 뉴테크융합 콘텐츠 대상, ③ 해외 한국어방송 대상에 선정된 총 14편의 우수작에 대하여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분야별로는 방송콘텐츠 대상은 '고래와 나(SBS)', 뉴테크융합 콘텐츠 대상은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썬몬스터유니온)', 해외 한국어방송 대상은 '초원의 밤상, 반란이 시작되다(몽골 KCBN)'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막식에 이어, 국내외 연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해외연사로는 전(前)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 부사장이자 현재 글로벌 미디어 연

구 및 컨설팅사인 글로벌 커넥츠 미디어(Global Connects Media) 대표인 더글라스 몽고메리(Douglas Montgomery)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성공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연사로는 디즈니 플러스 '무빙'의 제작사인 스튜디오앤뉴의 장경익 대표가 “'무빙'의 사례로 본 K-콘텐츠의 가능성”을 주제로 '무빙' 제작기와 K-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후에는 방송·미디어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방송·미디어인의 밤이 마련됐다.

12월 12일에는 '방송·미디어 미래 전략 콘퍼런스'가 총 5개의 세션으로

개최된다. AI·디지털 기술 기반 제작 및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콘텐츠로부터 시작되는 미디어 플랫폼 확장 전략, AI·디지털 기술 변화가 가져올 미디어·콘텐츠 산업 변화 등에 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콘퍼런스에는 방송·미디어 분야 성공 사례들이 발표된다. △ 국내 최초 가상인플루언서 로지를 제작한 (주)로커스의 이승환 실장, △ '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이' 등 국내 유명영화의 VFX 특수효과를 제작한 더만타스토리의 정황수 대표, △ '강철부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채널A의 서혜수 CP, △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와 IP 시장 개척에 성공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이승규 EVP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혁신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다이렉트미디어랩 한정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 서울예술대학교 김광집 교수, △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이사, △ 콘텐츠 웨이브의 노동환 리더, △ MBC 사내벤처 딩딩대학의 양효걸 대표, △ CJ ENM의 장세희 팀장이 참여하여 AI·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연계 행사로 뉴테크 융합 미디어·콘텐츠 콘퍼런스와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가 각각 개최됐다. 12.11(월)에 열리는 뉴테크 융합 미디어·콘텐츠 콘퍼런스에서는 미디어·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AI·디지털 융합 기술 및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한 ICT 신기술 적용 방송·미디어 융복합 콘텐츠와 제작환경 개선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쇼케이스와 방송·미디어 산·학·연을 비롯한 기술 보유 사업자 간 네트워크 미팅이 진행됐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가 개최되어 해외 한국어 방송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 분야 최신 트렌드와 방송제작 노하우 및 신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방송·미디어 산업에도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섬풀장·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역  
**7만7820m<sup>2</sup>**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킹덤 조성

